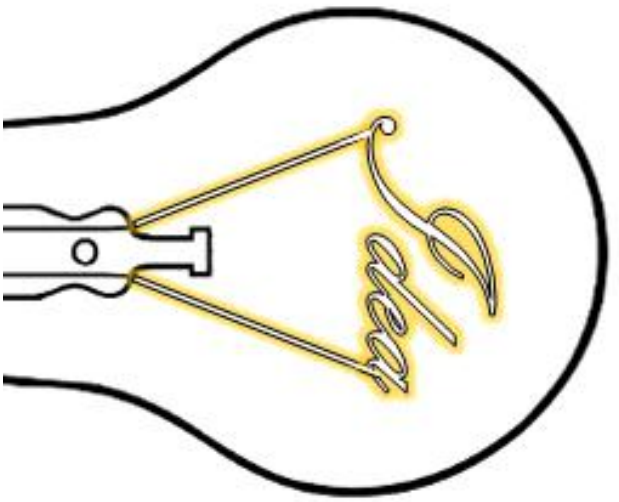
표지 파일 별도 첨부(표지 색감 세련되게 수정 부탁)

2018 학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후마니타스 & 다중 정원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인천국제고등학교'라고 넣어주세요. 표지 하단 가운데요.

2018 1학년 후마니타스 & 다중정원

○ **목적**

<후마니타스 & 다중정원>은 고전에서 찾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읽기-글쓰기-토론하기'**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분석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자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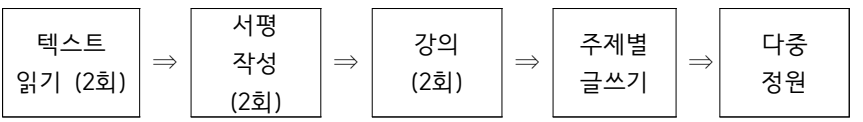
인천국제고 1학년 학생

○ **운영 기간**

2018년 3월 둘째 주~ 7월 말(12회)

○ **운영 방식**

2018년 후마니타스 & 다중정원 강좌는 **행복, 인간, 근대성, 사회**라는 4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매달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2개의 고전 텍스트 읽기와 2차례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다중정원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 전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과 의문점을 토대로 개별 서평을 제출합니다. 이후 강의를 수강하며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배우고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두 차례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에는 제시된 주제에 따라 2개의 텍스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글쓰기 과제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이 글쓰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정원에서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다중정원은 최종 주제별 글쓰기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 중 선발된 *우수 논객(3명)의 상호 교차 질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수 논객 외의 학생들은 자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수 논객**: 주제별 글쓰기 과제를 평가하여 교사가 3명을 선정함. 글 자체의 **논리성이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논쟁이 되는 쟁점을 명확히 하여 **사고의 깊이를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정됨.

○ **운영 내용**

차시 (날짜)	주제	강의 및 토론
1(3/23)	행복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2(4/6)		현대인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버트란드 러셀**
3(4/13)		**[다중정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는 서열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4(5/4)	인간	타자에 대한 나의 책임 **엠마누엘 레비나스**
5(5/11)		인간이라는 기준의 재구축 **서경식**
6(5/25)		[다중정원]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7(6/1)	근대성	개인의 발견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8(6/8)		자기 진정성의 윤리 **찰스 테일러**
9(6/15)		**[다중정원]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0(6/22)	사회	대도시와 정신적 삶 **게오르그 짐멜**
11(7/13)		문명의 야만성과 세계화 비전 **도정일**
12(7/20)		**[다중정원] 문명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명세계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 차 례 -

행복	**[주제1]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도덕적 삶(우수논객)	10221	조세정	6
	f(도덕)=행복?(우수논객)	10404	이성우	8
	도덕적인 삶은 과연 행복할까?(우수논객)	10605	이근혁	11
	행복을 위한 길: 내가 먼저인가, 남이 먼저인가?	10115	박정민	13
	도덕과 행복, 불편한 동거	10201	김승찬	15
	나는 절제하고 행동하고 감사한다	10202	백두산	18
	도덕의 굴레	10217	유 민	22
	성공만이 행복인 사람들에게	10516	여현주	24
	도덕은 곧 행복이다	10606	장준원	26
	도덕은 행복이 될 수 없다	10616	오시연	28
인간	**[주제2]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인간에 대하여(우수논객)	10114	문서정	31
	내 안의 또 다른 빅뱅 이론(우수 논객)	10307	고은비	33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존재(우수 논객)	10603	김윤재	35
	인간의 ‘is’ 그리고 ‘should’	10204	오동건	37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10305	이희찬	39
	仁? 人?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10308	김가현	41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아서	10419	유혜원	43
	인간의 의미와 당위	10505	정인서	46
	인간다움: 욕망의 존재	10515	신다은	48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공감’	10613	박지연	50

근대성	**[주제3]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자기 진실성은 없다(우수 논객)	10103 안민석	53
	진짜 "목소리님"을 찾아서(우수 논객)	10201 김승찬	56
	나의 나(우수 논객)	10404 이성우	58
	내 안에 너 있다	10204 오동건	60
	사회를 향한 보호색	10214 박지민	62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서	10217 유 민	65
	'나'에서 확장하여 '사회'까지	10308 김가현	67
	I know or I don't know	10513 박다진	69
	사색을 통해 나의 목소리 듣기	10515 신다은	71
	자아실현을 통한 내면의 발전	10606 장준원	73
사회	**[주제4] 우리는 어떠한 문명과 세계화를 고민해야 하는가?**		
	인간을 위하여, 세계화를 위하여(우수 논객)	10106 조강현	76
	포장사회: 새로운 21세기의 전체주의(우수 논객)	10313 박채린	79
	올바른 문명의 진보, 세계화의 역설(우수 논객)	10505 정인서	82
	경제적 측면에서 본 문명의 오독	10101 김요엘	85
	부의 성공 신화, 일부의 성공 신화	10217 유 민	87
	진보의 문명, 사회 그리고 개인	10420 윤소영	89
	경쟁의 신화와 문명의 오독	10508 권나경	91
	세계화를 준비하는 개인의 자세	10606 장준원	93
	문명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10607 조성원	95
	사람의 사람다움을 위한 세계화	10621 채여원	97

[주제1]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삶은 행복한가?

최고의 좋음은 완전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완전한 것이 하나뿐이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일 테지만, 만일 여럿이라면 이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더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김태경 역, 2012)





선사시대의 공룡들처럼 지성보다는 근력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지성과 감성을 배제하고 의지와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현대판 공룡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이 현대판 공룡의 놀라운 성공 때문에 현대인들은 너도나도 이 공룡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 버트란트 러셀, 행복의 정복(이순희 역, 사회평론, 2005)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도덕적 삶



*우수 논객 10221 조세정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삶을 자신을 반성하고, 욕구와 충동을 절제하는 삶,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몇몇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다보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위에도 말했듯이 도덕적인 삶은 도덕적으로 사고하며 도덕적인 성찰을 하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찰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 스스로 당당해진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당당함은 자존감과 행복감 상승에 기여한다. 둘째, 계속적인 성찰은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합의된 가치에 대한 실천을 할 것이다. 이런 실천을 계속해 나간다면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실험이 하나 있다. 이 실험에서 한 무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전에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그 후 각 사람에게 5달러짜리 혹은 20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실험자는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시오."라고 지시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전부 남을 위해 쓰시오."라고 지시하였다. 오후가 되자, 돈을 다 사용하고 실험실로 돌아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다시 한 번 측정하였다. 어느 무리의 행복감이 증가하였을까? 놀랍게도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을 위해 5달러를 썼는지. 20달러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 5달러를 썼던 20달러를 썼던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삶이 행복하다는 것과 나눔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눔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누는데 있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나눔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눔을 하는 사람도 충분히 행복해 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큰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날까지 경험해 온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처럼 행복을 느끼진 않겠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사려고 노력한다면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순 없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f(도덕)=행복?



*우수 논객 10404 이성우

우리는 흔히 도덕이 행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기 전 도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도덕이란 인간 상호 간의, 또 사회에 대한 개인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공동생활에서의 인간의 행위 기준을 지시한다. 그리고 이 행위 기준에는 선악, 정의, 불의 등이 있다. 서양에서는 이 도덕이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 폴리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고 동양에서는 고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불교 등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공동체와 큰 연관이 있다. 도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나 집단의 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지배하는 원칙이 된다고 고영복 교수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늘 타인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잘 사는 것을 말한다. 그는 행복이 그 자체로 완전해야 하며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띠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은 늘 언제나 타인을 위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로 인해 얻는 결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공동체 유지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또한 공동체는 외로움 극복, 신체적 안전, 권리 보호 등 부차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이다.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수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

에 도덕을 추구하며 사는 삶,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철학자 러셀은 타인과의 과도한 성공 경쟁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쉽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옆 사람을 뛰어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불행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론에 대한 공포 또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주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다. 타인에게 영향 받으며 사는 삶, 관심이 타인에게 쏠려 있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아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타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러셀은 행복의 조건으로 열정을 든다. 이 열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스스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무절제한 욕망에 따른 열정이 아닌 진정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열정을 쏟아 부었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는 유아기 때 받은 도덕 교육에 의해 느끼는 죄의식도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거짓말, 욕, 비방은 절대 안 된다. 술, 담배는 부도덕한 짓이다.'라는 어린 시절의 도덕 교육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성인이 된 후에도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 교육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안전한 사회는 좋은 공동체와 의미가 통한다. 즉, 공동체 유지라는 도덕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교육이다. 그러나 이를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옳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거짓말이 항상 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행위라도 선의의 거짓말과 같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다. 즉, 절대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일부를 들어 그 자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도덕 교육은 공동체 유지의 강조로부터 비롯된 폐해이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죄의식을 느끼며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다.

도덕은 내면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삶은 내적 만족을 불러온다. 하지만 내적 만족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

복에 도달할 수 없다. 행복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은 타인을 위한 행위를 높이 사며 내면적 만족을 추구한다. 그리고 오히려 외적 만족, 물질적 만족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동양 사람들이 청빈을 높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욕구의 충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 교수의 행복 곡선을 보면 알 수 있다. 행복은 소득에 비례하진 않지만 일정 소득까지 증가하게 된다. 즉, 어느 수준의 소득, 일정량의 육체적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러셀, 그리고 대니얼 교수의 행복 곡선을 통해 도덕은 행복과 같은 말이 아님을 알아낼 수 있었다. 고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은 과연 행복할까?



*우수 논객 10605 이근혁

"도덕적인 삶은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도덕'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도덕' 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의미하고, '행복' 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을 뜻하지만 여러 차례의 후마니타스를 들은 학생들은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도덕으로 넘어가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일까? 이것들은 대부분 정직, 효도, 양심 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선을 베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삶은 과연 행복할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의 대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고 살아간다. 그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에 관련된 예를 들어볼까. 한 부자가 있다. 이 부자는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어느 누구라도 이 부자가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해 "예" 라는 대답을 던졌던 사람이 있다면, 이 반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도덕적인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

니라,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의 일부분을 채운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최대한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건 아니지만, 때때로 법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기도 한다. 맘에 드는 노래가 있어 공짜로 다운을 받고 싶다고 생각해보자. 법적으로는 이런 행동은 불법이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감행했을 때,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은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근거로 '양심'을 들 수도 있다. 아마 양심에 따르지 못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에 대해 반대로 말하고 싶다. '양심의 가책' 이라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인데, 만약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에 관한 가치관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도둑질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공자의 말에 따르면 양심은 뾰족한 삼각형과 같아서, 옳지 못한 행동을 지속할 경우 그 삼각형은 닳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결국, 도덕과 행복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넘었을 때 행복하다" 라고 정의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주장하고, 물론 나 또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또한 아니다. 결국 행복은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도덕적인 삶' 이라는 것은 이를 채우는 데에 있어 부속품에 불과하다.

행복을 위한 길 : 내가 먼저인가, 남이 먼저인가?

10115 박정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행복을 정의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거쳐 풀어나가야 할 심오하고도 진심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도덕성과 행복의 상관관계'이다.

도덕적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 것일까?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또한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도덕이 필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도덕을 지킴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보호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도덕적인 삶이 보장하는 안전과 질서가 곧 행복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 중 자유로부터 비롯하는 행복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 우리는 도덕적 잣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 그런데 굳이 내 행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도덕보다 행복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도덕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살인, 절도, 사기 등 사회에 직접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는 비윤리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히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명목 하에서 절대 용서될 수 없다. 도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을 굳이 행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게 윤리적 관점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이다.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

지 않는 것이 분명히 다르듯이, 도덕을 해치는 것과 도덕을 굳이 행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며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생각해보자. 도덕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이 사람이 가방을 찾는 것을 함께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 해서 그게 나쁜 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을 도우며 뿌듯함과 인간미를 느끼는 것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TV를 보는 것이 더욱 행복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도덕은 외부적 강제성이 없는 사회적 통념일 뿐이다. 도덕의 주체는 나 자신인데, 내 자신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가치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도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것이 도덕을 무너뜨리는 반도덕적 행동이 아니라면 말이다.

도덕을 따르느라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압받는 삶이고 또한 불행하기까지 하다. 만약 우리가 교칙은 학교의 질서와 규율을 확립해주므로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머리카락 길이가 어깨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사실 이 교칙을 안 지킨다 해서 도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것을 지키면 공동체 문화의 질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잣대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억압의 장치로 작용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도덕을 지키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 된다. 굳이 교칙을 따르는 것보다 교칙에 어긋나더라도 머리를 기르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행복하다. 이럼에도 과연 도덕적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며 마치 성인군자와 같이 생활하는 게 어느 이에게는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자신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도덕적 프레임 안에 맞지도 않는 자신을 구겨 넣기보다는 도덕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도덕과 행복, 불편한 동거

10201 김승찬

우리는 종종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냐고' 말이다. 그리고 항상 따라붙는 말.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렇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많은 죄를 짓고도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덕적인 삶'이란 단어를 수없이 듣고 그런 삶을 살라고 교육받는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나의 생각을 써내려보고자 한다.

'도덕'이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를 통해 정의해 보고자 한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 '도둑질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도둑질이 부도덕하다고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한 존재는 누구일까? 바로 그 존재가 '양심'인 것이다. 즉, 도덕의 구성요건은 '다수'와 '양심'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이 성립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청탁(뇌물)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는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는 양심에 따라 사람을 해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록 자기의 '양심'을 따랐으나 '다수'는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심’과 ‘다수(보편성)’는 상호 보완적 존재이며, 결국 도덕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양심’이란 틀 속에서 맺은 일종의 약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은 정의내리면 불행해지는 정의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내리면 우리는 모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 행복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타율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행복의 필수조건은 존재한다. 어떤 행복이 되었든 간에 앞서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행복의 주체가 되는 ‘주체성’, 어떤 공간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이 성취감, 안정감을 주어 행복에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해준다.

결과적으로, ‘행복’과 ‘양심’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보자. ‘양심’이라는 존재 때문에 삶이 불편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바로 ‘밀그램의 권위복종 실험’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다시피, 권위자에게 불복종 행동을 한 35%의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된다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불복종행동을 통해 도덕을 실천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도덕적이지 못했던 65%의 나머지 사람보다 더 괴로움을 느꼈고, 따라서 행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체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이 실험 목적의 실현을 방해했다는 자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실험자와 맺은 실험성공을 위한 약속 및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느꼈다고 한다.
즉,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지만, 불복종한 피험자는 자신이 실험이라는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결과

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던가. 행복이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길동'을 생각해보자. 모두가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도둑질'을 통해 빼앗은 식량과 재물들을 현실적으로 그 식량과 재물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홍길동을 불행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렇듯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본다면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 행복하다'라는 환상에 빠져 오히려 행복을 더 멀리한 것은 아닐까하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글귀로 이 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지나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인생을 즐길 수 없게 된다. 도덕 그 이상을 목표로 하라.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 목적 있는 선함을 가져라."

나는 절제하고 행동하고 감사한다

10202 백두산

나는 주장한다. 도덕적인 삶은 행복하다.

왜 사람들은 도덕적이면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까?

나는 행복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행복 크기는 기대치 분의 실제 값에 비례한다(*행복∼기대치(욕구)/실재 값*). 현대인들은 더 쉽게 실제 값을 스스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가? 아니다. 실제 값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욕구는 그 몇 배로 증가하고 행복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스스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고 욕구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개인주의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도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제하는 삶

절제하지 않는 삶은 끝이 없는 고통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같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고 오직 실제 값만 추구하게 된다면 욕구는 이에 몇 배로 뛰어 행복의 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만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면 잠시 행복하겠지만 곧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을 원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끝이 없는 욕구 추구 속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위에 도식화한 행복의 도식을 보면 행복의 크기는 기대에 반비례한다. 고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욕구)를 낮추면 실재 값이 적더라도 충분히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 욕구가 꼭 필요한 것이지, 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미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그 판단의 결과가 '그 욕구는 꼭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온다면 그 욕구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행동이 바로 절제이다.

도덕적인 삶이 행복하다는 이유는 자신을 더 객관적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덕적인 삶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라는 욕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욕구로부터 나온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삶에서의 도덕적인 삶은 개인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인 삶이 행복인 이유를 더 찾아보겠다.

행동(사랑)하는 삶

인간은 절대 타인과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로 원치 않더라도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동(교류)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예컨대 자신의 생일을 위해서 타인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행함과 같은 것이다. 전자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끊임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후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 행동에 대한 자기에게 돌아올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의 행함으로 그 행함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기에 후자는 줌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의 두 행동은 모두 자신에게 그 행함에 대한 선물로 되돌아 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복의 크기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받은 실재 량이 자신의 부푼 기대보다 못하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에게 돌아올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선물이라도 무궁무진하게 큰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행동하는 삶, 타인을 사랑하는 삶은 곧 행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을 얻는 삶 또한 된다.

도덕적인 삶은 올바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타인이 필요하거나 기쁨을 느끼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주면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것은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의 행동이다. 하지만 혼을 냄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학생이 자각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말이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모두 사랑을 실천하였지만 후자처럼 도덕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 그 학생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하는 삶

우리는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하는 것이란 곧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나오는 태도인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대치는 낮아지고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행동(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로 인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달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도덕과 행복의 관계

행복하기 위해서는 실재 량을 높이거나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 실재 량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실재 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치는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재 량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을 한 걸음 뒤에서 보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도덕은 이 과정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절제, 감사, 사랑은 곧 도덕적인 삶의 핵심이 아닌가. 고로 도덕적인 삶은 행복하다.

도덕의 굴레

10217 유 민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호구(虎口)를 이렇게 뜻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호구라는 말이 뜻하는 대상은 겨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순진한 사람, 순박한 사람, 더 나아가 착한 사람까지도 호구라 부르며 더 독해져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채찍질한다. 어느 순간부터 착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살자는 구호는 사라지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대체 언제부터 착한 사람이 바보 같다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일까? 도덕성은 더 이상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일까?

「행복의 정복」의 저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의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한 폭넓은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가능한 한 당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인간에 대해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라." 이처럼 세상을 밝게 보고 주변인을 도우려 하는 선한 마음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어져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이익을 존중한다면 다툼과 분쟁 없는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지 모른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 바로 그러한 상황의 한 예이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스스로 착한 아이를 연기하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아이는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타인에게 순종적이고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유년 시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착한 아이는 착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밝은 모습을 유지한다. 또한 규칙이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데서 자존감을 잃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얽매여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사소한 욕구마저도 제한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도 깨트려 버린다. 도덕적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행복까지도 불러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착한 이미지라는 틀에 갇히게 된다.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조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오늘날의 사회에서 착한 사람은 이용하기 좋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며 얻는 행복은 누군가의 탁월성으로 얻은 행복만큼이나 값지다. 하지만 꼭 자신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이유는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변의 것들의 호의 어린 시선과 행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나 자신을 넘어서 혼자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공만이 행복인 사람들에게

10516 여현주

요즘 사람들은 성공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에 치이면서 오히려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성공을 얻기 위해 조금 덜 바람직하더라도 성공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어떤 사람들은 바람직한 행동만 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 즉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한 후 자신이 느끼게 되는 뿌듯함 등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도덕적인 행동을 한 후 느끼는 뿌듯함과 보람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도 다른 사람을 돕거나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후에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이를 무시한 채 그냥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들은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도와준 후에 뿌듯함을 느끼며 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 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라고 할 수 없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복을 얻어낸다면 그렇게 행복을 얻어낸 사람은 진짜 행복할까?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해서 동생이나 친구의 먹을 것을 빼앗아서 먹는다면, 시험을 100점 받을 때 행복하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100점을 맞는다면 진짜로 행복할까? 물론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행복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바람직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어 낸 행복은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한 후 느끼는 뿌듯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 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의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덕적인 사람들은 지켜야할 행동만을 행하기 때문에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 쾌락만 추구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행복할 수 없다.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 그 때 받은 뿌듯함과 보람과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은 곧 행복이다

10606 장준원

20세기 최고의 지식인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버틀란드 러셀은 불행의 원인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이 곧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은 주로 현실의 상황을 언급하며 도덕적으로 살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필자는 현대인들의 의문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러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보충하기 전, 정확히 어떤 삶이 도덕적인지 알아보자. 사전에서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여론에 비추어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양심'과 '스스로' 이다. 타인의 규제가 아닌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강제가 아니라 자율에 따라 스스로 도덕을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삶이란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켜 나가는 사회적 규범인 것이다.

도덕적 삶이 행복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도덕은 단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달려나가고 막상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설사 그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과정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 반면 단기간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도 배려, 존중, 양심 등의 필수적인 도덕 규범을 어기지 않는다면 외면적으로는 자칫 남들에게 다 내어주는 존재로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까닭보다도 자기 삶에 떳떳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최후의 단계는 다름 아닌 도덕적 삶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삶이 행복한 삶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관문인 것이다. 러셀은 불행의 원인 중 몇 가지로 경쟁, 질투, 피해망상 등을 꼽았는데, 모두 도덕과 거리가 먼 감정이자 태도이다. 경쟁은 더 발전하기 위한 긍정적 현상이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필자는 무분별하고 득이 없는 경쟁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비도덕적 요소들은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행을 초래한다. 따라서 행복, 그것도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나 명예, 사회적 지위 등은 행복을 위한 부수적 수단이지만, 도덕은 행복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해지기 방법이나 요소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도덕적 삶이자 가치관이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불가능한 것과 같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짧은 기간에서만 그럴듯해 보이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도덕적 삶이 필수적이다.

도덕은 행복이 될 수 없다

10616 오시연

'착하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 말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착하게 살면 왜 행복해질까?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수긍하기만 했던 이 질문에 나는 반박을 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걱정 없이, 신경 쓸 일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을 행복이라고 정의한다. 사실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힘든 일을 통해 만족을 얻고 끝내 성공해낸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삶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삶이란 도덕적 가치에 맞게 행동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 즉 말 그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생활 또한 도덕적 삶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도덕적 삶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덕과 선, 즉 착함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삶이 착하게 사는 삶과 같다는 전제 하에 주장을 이어나가겠다.

'도덕적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덕과 행복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도덕적 삶은 착하게 사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람들은 바람직한 목표만을 세우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누군가는 다

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살인이라는 목표를 이뤄냈을 경우 그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행복해진다. 이러한 반례들은 착하게 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반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선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그 행동이 자의가 아닌 타의적이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해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하다는 의견에도 반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행복이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충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험을 잘 보자'라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함에 따라 모르는 문제가 적어지고 시험을 잘 보았을 때 행복해질 수 있으며 '건강한 몸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운동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행복해진다. 이처럼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행복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곧 행복이 되며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자아 실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도덕과 행복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행복은 목표 달성을 통해 이뤄진다.'의 두 가지이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삶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둘은 별개의 문제일 뿐이며 도덕은 도덕대로, 행복은 행복대로 올바르게 추구하여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2] 인간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거기에는 먼저 얼굴의 정직함이, 방어하지 않는 정직한 노출이 있습니다. 얼굴의 살갗은 가장 헐벗고 가장 궁핍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얼굴은 가장 헐벗은 것이지만 품위 있는 벌거벗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책임을 타자를 위한 책임으로,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위한 책임, 또는 심지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위한 책임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얼굴을 통해 내가 만나게 되는 정확히 말해 나와 관련된 책임입니다.

- 엠마누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양명수 역, 다산글방, 2000)





나는 '아우슈비츠'가 단순하게 우리에 대한 도덕적 경종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근대에 기인하며, 지금도 현실 그 자체에 내재한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는 '일부 인간은 인간 이하'라고 하는 사상, '인간은 비인간이다'라는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는 한 '아우슈비츠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서경식,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박광현 역, 창비, 2006)

진정한 인간에 대하여



*우수 논객 10114 문서정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란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고 인간인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모습을 한 채 속은 인간이라 해도 그것은 온전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가장 보편적인 것,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장 규범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보편적인 것을 둘로 나누려 합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보편성,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보편성. 개인적인 보편성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세상에는 수많은 따돌림이 존재합니다. 흔히 따돌림에는 이유가 없다고들 하지만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를 기준으로 삼으며 옳고 그름을 판가름합니다. 따돌림은 바로 이 '나'의 기준들이 일치하는 몇 몇이 모여 무리를 형성하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한 존재를 옳지 못하다고 여겨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나'가 기준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 내 생각, 내 집념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 자신'이 겪었는데 '나'의 시선에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곧 '나'가 적어도 '나'에게 만큼은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곧 세상의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옳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흐름이며, 결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의 구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나'라는 기준이 선인가 악인가의 정

도에 따라 인간다움이 결정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 옳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려는 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는 '나'의 기준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자신의 옳음을 국가 전체에 주입시켰습니다. 이때 히틀러의 기준은 그에게는 보편성이 있으나 악한 것이므로 인간다움에는 어긋납니다. 즉, 보편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는 인간이 아님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추종했던 자들도 모두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은 '나'의 기준들이 일치할 때 모이고, 이 기준에 맞지 않은 자들을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들도 결국 히틀러와 같은 옳지 못한 기준을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후마니타스 시간에 언급된 레비나스가 잊지 못하는 표정을 지은 인물의 심리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옳지 못할지라도 그의 기준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와 다른 기준을 가진 레비나스는 옳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의 선과 악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성에 따릅니다. 바로 전체적인 보편성이지요. 사전에 따르면 보편성은 '좋다'고 말해지는 어떤 것에 관한 모든 사람의 판단에서 동일한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존재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거나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다움은 보편적인 것으로 존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인간(이것도 '나'의 시선들이 만든 개념입니다)을 흉내 내며, 스스로 '나'의 시각에서, '나'의 기준에서, '나 자신'이 인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빅뱅이론



*우수 논객 10307 고은비

인간이란, 내부세계와 외부세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존재입니다. 즉, 2개의 세계 속에서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 외부세계는 외적 자아입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요.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 위치, 직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외부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입니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는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상사 또는 동료,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는 가장, 대한민국 내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정의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그의 행동과 태도 역시 변화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가지는 페르소나가 여러 개이듯, 외부 세계 역시 여러 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세계는 양적으로 발전합니다.

한 편, 외부세계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 모두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 사회에서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그 예이지요. 그러나 내부세계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내부세계는 내적 자아입니다. 한 사람의 본질, 본성, 본모습 등 그 자체의 고유성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부세계는 외부세계와 이분법적으로 작동하고, 두 세계는 불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상사는 그 사회적 역할과 지위 때문에 명령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타인에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은 온순하고,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

부세계는 외부세계에 가려져 발현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외부세계와 달리 여러 개를 생성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내부세계 역시 단 한 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 성찰 및 자기 계발을 통해, 외부세계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생물들과 크나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로, 인간은 내부 세계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세계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내부세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고유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인간의 내부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인간 내부 세계가 잘못된 외부 세계 속으로 동화되면, 전쟁이 전세계를 파괴했듯 외부세계 역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하루를 '빅뱅 이론'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주가 창조하듯 외부세계와 내부세계는 매일 발전을 이룩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외부세계에만 동화되지 않고, 내부 세계의 고유 가치를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내부 세계를 잃는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존재



*우수 논객 10603 김윤재

인간은 동물의 한 종족으로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언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지능을 가지고 이성적인 존재를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대중적이고도 사전적인 정의이고 보통 인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바로 지식과 지능에 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동물들을 훈련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먹이, 즉 보상입니다. 바나나와 같은 먹이 없이는 그 똑똑하다는 침팬지와 영장류들도 훈련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의 학습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생존과 연관된 식량이고,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도 음식, 즉 보상은 필수적입니다. 인간은 조금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갈망하며 지식을 추구하면 누구로부터 보상이 과연 떨어질까요? 처음 인간들의 지식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오늘날 현대의 인간들은 고작 '보상'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 혹은 자신이 미래에 일하길 원하는 분야라든지, 자신이 깊게 흥미를 느끼며 더 알아가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성과 지능이 확실히 발달해서 가능한 일이며, 인간만의 특권이자 권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뛰어나며,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높고 똑똑하여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의식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을 추구하며, 더 큰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인간이란 배움을 추구하고 지식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지식을 탐구하는 동시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확하거나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즉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는 크고 작은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지식이 탐구하거나 갈망하는 인간으로서 지식활동과 그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는 소홀히 해도 되지만,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 즉 온전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식을 원하는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자기 삶의 주체로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배움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진 인간이 목적의식 없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인간이 된다면 비로소 진정하게 '배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is’ 그리고 ‘should’

10204 오동건

어떤 존재를 정의내릴 때 우리는 대개 다른 것과는 차별되는 그 존재 고유의 특성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인간의 사전적 정의는 ‘동물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직 사회를 구축하고 언어와 도구를 이용해 살아가는 고등동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모든 동물에게는 각자에게 있어 생존의 방식이자 경쟁력이 되는 특징을 신체에 지니고 태어난다. 예를 들면 치타의 엄청난 스피드라던가 뱀의 독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이런 것들 대신, 지능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생존과 진화를 거듭했다. 고찰하고 사유함으로써 불을 피워내는 것에서부터 문명을 이룩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해내었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왔다. 또, 그 과정에서 인간은 단순히 물체를 구별하고 할 일을 생각하는 등의 사고수준에서 벗어나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생존 방식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선악을 구분 짓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도 옳은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도덕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리해 본다면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닌 사회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성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선을 실현시킬 때, 인간 개개인은 그

존재 자체로서 완전함을 지닐 수 있다. 사회에는 도덕성을 지니고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 부류와 도덕성 자체도 지니고 있지 않아 악을 행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소시민적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이기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지닌 사람들이고, 후자는 같은 인간들에게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라는 집단 속에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무너뜨려 공동체로서의 인간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확장시켜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거스른다. 마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는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이성 역시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도덕성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완벽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실천을 통해 선을 실현해야 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10305 이희찬

"그게 인간으로써 할 짓이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인간답지 못 하네." 우리가 잔인하고 냉혹한 상황이나 장면을 볼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다움' 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인간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다움이란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그게 우리의 좌우명이지."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인조인간을 만드는 회사의 타이렐 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 이 영화 안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생각을 요구합니다. 영화 속 인조인간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입니다. 인간을 위해 죽기도 하고 자신들의 종족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영화 속 홀로그램은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들은 지금껏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분하는 가치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과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는 인간, 그에 반해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인간의 따뜻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게 된 로봇. 이 두 존재 중 누가 더 인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화재가 났고, 여전히 건물 안에 희생자가 있는 상황. 살고자 하는 본능과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이기심이 뒤죽박죽되어 타인을 밀치고 바깥으로 뛰쳐 나오는 인간. 이에 반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타심으로 거친 불길 속을 뛰어 들어 피해자를 구하는 인조인간.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조인간보다 대우 받고 우선시 되어야만 할까요?

저는 인조인간이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느껴집니다. 저는 인간다움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성적 사고, 그리고 사랑과 이성을 바탕

으로 이끌어낸 결론을 실천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타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생각과 다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상황에 제가 설정한 인간다움을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게 행한 고문을 보고 그들이 인간답지 못하고 하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성적 사고, 의지 중 적어도 하나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한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우 생각과 판단, 행동 모두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 사고가 없는 경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경우 결론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끔찍하고 잔혹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그들은 인간답지 않았다.' 라고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인간다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인간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악하기 보다는 자본주의와 경쟁사회가 만든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 인간다움을 쉽게 져버린다면 우리가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 즉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한 가지 구별되는 점이 될 것입니다.

仁? 人?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10308 김가현

저는 우선적으로 사람들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면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인터넷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검색했고 모든 사람들은 이는 심오한 질문임을 공감하며 보편적으로 仁, 즉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한자를 앞세워 부모를 섬기는 효와 형제간의 우애가 깊으며 이기심을 버리고 예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골똘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를 따르지 않거나 부모님께 반항한 적이 있다면 과연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일까?' 仁에 초점을 두고 이 질문에 답변하였다면 인간다움을 잃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께 반항하여 예를 따르지 않고 이기심이라는 좋지 않은 방향의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이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다움의 정의는 仁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人에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人, 즉 사람 그 자체는 생명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가치를 갖고 같은 격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가치가 잘 보호되고 타인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해줄 때 인간다움이라는 정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다움과 다르게 정의 된 까닭을 더 생각해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본 입장과 타인을 아울러서 생각해본 입장으로 바라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仁은 자신의 행동거지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간다움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人은 자신의 가치가 보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줄 때 나의 가치도 상호적으로 보존되며 동시에 인간다움을 지닐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仁을 통한 관점으로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절하

는 이유는 타인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仁과人중 어느 쪽이 타인을 위한 배려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人을 통한 관점이 조금 더 타인을 위한 방향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레비나스의 주장이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을 뒷받침해주며 어떤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은 모두 존중한 존재라고 말했던 서양철학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반되는 레비나스의 주장에서부터 뒷받침되는 근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과 우리 자신은 비대칭을 이루며 오히려 타자가 우리의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자가 나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기에 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지,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남을 낮게 판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평등한 가치를 지님을 앎과 동시에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이 태도는 진정한 인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 '불인인지심'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마음이 인간다움에 있어서 인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인인지심이란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근본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때, 타인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다운 사람으로서 이를 느껴야합니다. 왜냐하면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우월한 처지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자신을 중심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타인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함을 인지하고, 타인을 존중하여 가치를 높여줌과 동시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아서

10419 유혜원

당신은 '인간'인가? 개인의 '인간'이라는 기준의 양상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판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간'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에 의해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서경식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인간을 희생시키는 자와 희생당하는 자가 '다 같은 인간'에 포함된다면 그 '다 같다'는 말은 무의미해지고 '인간'을 말할 수 있는 공통의 척도는 파괴된다. 즉, 서경식 교수는 '인간'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기준의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주체는 누구인가? 서경식 교수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주목하여 인간의 척도를 재구축 하고자 한다. 그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려는 윤리적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보며, 피해자측이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차별하는 자'에게는 '같은 인간'이라는 관념은 그저 단순한 표어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차별받는 자'에게는 자신의 육체나 정신을 지키는 투쟁에 근거이며 무기이기도 한 것이 '같은 인간'이라는 명제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측은 언제나 가해자를 포함한 새로운 보편성의 틀을 재구축하는 역할을 짊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인간의 보편성의 틀은 가장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로 인해 구축된 기준이다. 그들은 '같은 인간'이라는 명제 하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 차별하는 자와 차별받는 자가 존재했기에 지금과 같은 보편성의 틀이 구축될 수 있었

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치심'의 유무에 따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 누군가는 가해자인 동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자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보편적 문명의 구축이라는 난제를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숙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짊어질 주체는 누구인가? '피해자'와 '희생당하는 자', 그리고 '차별받는 자'에게 '새로운 보편적 문명의 구축'이라는 과제의 해결을 강요할 순 없다. 그들에게는 그러할 의무도, 어쩌면 여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인간', 즉 인간 보편성에 대한 소중함은 그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보편적인 '인간', 혹은 그 이상의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인간 보편성이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 보편성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은 '인간 보편성'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며, 그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즉, 현존하는 인간이라는 기준의 범주에서 차별받고, 희생당하는 자들에게는 인간 보편성을 재구축할 의무는 없지만, 그들만이 보유한 직감, 혹은 간절함이 존재하며, 결국 이것만이 새로운 문명의 구축이라는 우리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존하는 인간이라는 기준에 의한 피해자들은 그러할 의무도, 여력도 없다. 또한, 우리 시대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삶조차 위협받는 그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구축까지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당하고, 더 많은 차별을 받는 이들이 우리의 새로운 인간 보편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더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들만이 지닌 '같은 인간'이라는 명제의 소중함,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간 보편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시대를 만들어 간 장본인인 우리가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다면, 너무 무책임하고 '인간'으로서의 '수치심'마저도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하며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표할 수 있고, 표해야만 하는 존경이자 예의이다.

새로운 인간 보편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은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피해자는 새로운 인간 보편성을 구축해 나갈 것이고, 가해자는 새로운 인간 보편성 구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때, 비로소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성'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의미와 당위

10505 정인서

시대를 거치며 여러 철학자, 사상가 등에 의해 '인간'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립되었으며 현대까지도 그것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역사 속의 다양한 사건은 인간의 의미를 정립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극한의 잔혹함과 극한의 선함을 보인 사건은 우리가 인간의 의미를 돌아보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일고 있다. 과연 인간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은 생각하며,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쓰며, 사회를 이룬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은 모두 사회 공동체의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맺는 약속이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인간은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이때의 생각은 개인의 개인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그 자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이성 (logos) 으로 설명하였다. 인간의 사전적 의미에서 설명하는 생각은 바로 이 '이성'에 따른 생각과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자신이성이 아닌 본능과 감정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본능이 사회 공동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이

는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는 인간의 특징이 된다. 하지만 가끔 인간은 이성에 따른 판단을 내리지 못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인간이라면,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이성에 따른 판단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간은 위와 같은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인 정서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따라 신중히 생각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인간은 이에 저항하지 않았고, 결국 이성에 따른 올바른 선택의 경우는 줄어들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본능과 욕심에 의해 내린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또한 현대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시로 '나치'를 들 수 있다. 나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인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은 잔혹한 사건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나치 군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시켜서 했다.", "거부할 수 없었다." 등의 의견을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인간만의 특징인 '이성에 따른 생각'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부끄러움'을 무시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인간의 조건을 다하려고 했더라면, 명령을 받아 행동하기 전 그 행동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성을 통해서 했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바로잡으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야 한다. 이렇게 현대의 인간은 이성에 따른 올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인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은 그 특성을 충족하여 그 진정한 의미로 다가가야 한다.

인간다움 : 욕망의 존재

10515 신다은

세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정의한다. 종교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민주주의적 관점... 그중 헌법질서에서는 인간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정의한다. 이는 인간은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 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지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고유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자유 의지를 지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위에서 정의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헌법 질서에서 정의하는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모두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이다. 2018년 5월 13일에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장애 아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에서는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과 흉기 테러로 모두 12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같은 인간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저러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프리모 레비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끔찍했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결국 자살을 택하게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신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같은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군인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시체와 함께 침상을 쓰고 다른 사람의 빵을 먹기 위해 옆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헌법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은 욕망과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IS나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군,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군 모두 그들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행동했고, 그것이 지나쳤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프리모 레비 역시 배고픔이 극에 달해 식욕과 포만감을 향한 욕구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 자신이 그 빵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다. 이익 없이 손해만 늘어나면,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사람들의 이익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갈등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는 반성의 태도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필요하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기 성찰하고 반성했을 때, 비로소 눈앞의 이익과 욕구에 가리어 졌던 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향한 타인의 윤리적인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느끼는 수치심을 통해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공감'

10613 박지연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의 주위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으며,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인간'들이 형성해 발전시키고 이어져온다. 이렇게 자신 그 자체이면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인간'에 있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숨을 쉬고 자라나며 생존하고자 한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인간은 생각하며 소통한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며, 배우고, 스스로가 설정한 목적을 가지며, 동등한 존재이다. 이때 인간다움과 인간의 특징은 다른 개념이다. 이 두 가지를 각각 정의 해 보자면, 무언가의 '특징'은 그 존재가 가지는 모습이나 그것이 띄는 양상, 다른 존재들과의 차이점이며, '-다움'은 그러한 '특징'을 더욱 더 심화시켜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을 표현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인간다움이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공감이라는 말을 들여다보자. 내가 정의한 공감은 '타자의 마음에 동의하여 같은 감정을 느끼고 나누는 것' 이다. 이를 위한 밑바탕은 타인에 대한 인정이다. 공감의 대상을 인격체로써, 그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감정의 주체로서 인정해야만 공감이 가능하다. 또한 감정과 이해, 존중이 공감을 위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감으로 인해 우리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나 배려를 얻게 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렇다면 공감이 인간다움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공동체 의식 및 사회 형성이 공감으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타자 혹은 집단에 공감을 하면 유대감이 생기며, 그로 인해 공동체와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사회가 공감으로 이루어진 만큼 공감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존재이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

다. 또한 공감으로 하여금 배려와 타인존중이 실현되면, 서로 해치는 것을 지양하게 되고 타자도 자신과 같은 인간임을 알게 되어 공존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은 곧 다수가 원하는 이상향적인 세상을 이루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공감은 위에서 내가 정의한 인간의 특징들을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가지의 요소이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특성을 더욱 강화해주는 '공감'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주제3] 근대성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재능 많은 망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세계 시민주의는 개인주의의 절정이었다. 단테는 이탈리아어와 이탈리아 문화 속에서 새로운 고향을 발견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세계 전체가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였다. 그는 마뜩찮은 조건 아래 피렌체로의 귀향을 제의받자 이런 답신을 보냈다. "그 어디에 있건 나는 태양과 별빛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불명예스럽게, 아니 치욕적으로 국민과 조국 앞에 서지 않고도 그 어디서나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내게는 빵조차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학(이기숙 역, 한길사, 2003)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기 진실성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의 요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셈이다.

-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송영배 역, 이학사, 2001)

자기 진실성은 없다.



*우수 논객 10103 안민석

자기 진실성은 외부의 요소들이 아닌 자기 결정의 자유, 즉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질 때 획득될 수 있다고 한다. A라는 사람이 과자를 먹을지,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보자. A는 자신이 자유롭게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기에 자기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인지 과자인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접촉을 한 것이다. 즉, 자기 결정권이 A에게 있어서 A에게 자기 진실성이 획득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진실성은 자유 결정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이 없음을 후험적 증명 방식과 선험적 증명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후험적 증명 방식이다. 1980년초 이루어진 벤야밋 리벳의 "리벳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벤야밋 리벳은 피실험자들에게 의식적 행위(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를 시키고 뇌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결과는 피실험자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행위, 즉 '선택'을 하기 직전에 준비 전위라는 것이 측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경험이 허구이며, 실제로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두뇌의 정교한 신경적 과정임을 드러낸다. 더하여 신경 생물학자 게하르트 롯은 이 실험이 의지적 행동과 뇌 변연계의 관련성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게하르트 롯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경우 무언가 실제로 행해지는 최종적인 선택은 그 1~2초 이전에 뇌의

변연계에 강한 영향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뇌의 어떤 특정 움직임에 의해서 조종되는 각각의 메커니즘일 뿐이다.
다음으로 선험적인 증명 방식이다. 이에는 세 가지 증명 방식이 있다. 선험적 증명 방식 중 그 첫 번째이다. 이 증명은 모든 물질적인 사건은 모든 물질적인 사건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는 자유 결정권이 있어서 인간이 능동적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도 결국 인간은 능동적이지 못한 수동적 존재라는 즉, 인간에게는 자유 결정권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이 자유 결정권이 있다고 가정하여 논증을 시작하면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 원인도 나에게 있다.
선택에 대한 원인이 되는 나를 만들어낸 과거의 나가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로 향하다 보면 결국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해 우리가 생기는 시점까지 갈 것이다. 과연 그것이 나의 의지, 즉 자유 결정에 따른 탄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의지가 될 수 없다. 결국 나는 결정의 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없고 자기원인이 될 수 없다.
다음은 원자론에 입각한 설명이다. 원자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떠한 상태의 원자이거나 그 배열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사고한다는 것이 소위 정신 원자라고 불리는 원자들의 특정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물과 달리 우리가 이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사실 이성이란 것은 없다) 우리의 원자 배열이 그들의 원자 배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상 이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단어', 즉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저 타고난 원자의 배열과 움직임에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마지막 논증 방식이다. 이는 법에 의한 처벌의 목적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없음을 설명하고 다시 인간에게 도덕적 책

임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논변 방식이다. 이를 주장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법에 의한 처벌은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또 다시 죄가 발생할 것에 대한 억제와 건전한 일상인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는 어떤 죄를 범한 죄인에게는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없고 그 이유는 범죄가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유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자유 결정권이 없고 그렇기에 자기 진실성 또한 없는 수동적인 존재임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자유 진실성이 없는 우리가 윤리라는 것을 진정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윤리라는 것은 양심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자기 진실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보면 양심 또한 부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회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세뇌 교육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세뇌 교육을 함으로써 뇌의 움직임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원자의 배열과 그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세뇌 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진짜 “목소리님”을 찾아서



*우수 논객 10201 김승찬

자기 진정성의 윤리, 자기 자신에게 진실함을 통해 내 자신에 속한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를 논하기 앞서 ‘왜’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왜 우리는 자기 진정성의 윤리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자아정체성의 형성이다.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타자의 인정 없이는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자기 진정성의 윤리는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기 진정성의 윤리를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진실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괴물을 탄생시킬지도 모른다. 대표적으로 독일 나치의 ‘히틀러’를 떠올려 볼 수 있다. 히틀러는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욕구와 이상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 점을 통해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도덕 법칙을 준수하라. 여기서의 도덕법칙이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 법칙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도덕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이미 도덕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 진정성의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선택이 도덕 법칙을 거스른다면 이를 제어해야 할 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이 도덕 법칙인 것이다.

둘째,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아라. 자기 진정성의 윤리는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자기 진정성의 윤리를 설명하는 문장 중에 "너 자신의 것을 행하라, 너 자신의 실현을 추구하라"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 속에서 개인이 근본적 주체가 되어 행동한다는 개인주의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자기 진정성의 윤리의 '개인 창조'를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각자 자신에게만 맞춰지게 되었다. 이는 자신 이외의 타자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은 나 이외의 타인/사회/국가/신 등을 간과하게 되면서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자아도취적이고 원자화된 인간관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배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 감정만을 우선시하여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다양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없고, 타인과 사회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은 한 개인으로 극히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벗어난 희생정신, 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한 투사적 행위,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 실천 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고리'가 필요하다. 그 '고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유지이다.

"자기 진정성의 윤리는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다.

"도덕 법칙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부족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대원칙을 통해 자기 진정성을 추구한다면 비로소 진짜 내면의 "목소리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나



*우수 논객 10404 이성우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며 친구들의 친구이며 선생님의 제자이며 학교의 학생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가게의 손님이고 TV 프로그램의 시청자이자 남자이고 청소년이다. 이렇듯 나에게는 수많은 내가 있다. 나는 타인과의 관계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란 타인이 존재해야지만 존재하고 각각의 사람에게 마다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이는 것인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여럿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생기는 나의 다른 모습들은 진정한 나를 기초로 두고 있다. 그러다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나에 진정한 나보다 더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면, 그때 혼란이 온다. 타인과의 관계로 형성된 나는 진정한 나를 바탕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본성을 숨기어 만든 자아, 가면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가면이 피부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답답함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가면이 여러 개일수록 뭐가 자신의 피부이고 가면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 가면은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형성되지만 재료는 자기 자신이다. 즉, 가면 또한 나라는 것이다. 그저 나라는 주재료에 타인이라는 색을 입힌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인 것은 아니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가면을 피부와 동화시켜버린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나를 분해하여 수많은 가면을 만들고 진짜 피부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가면을 벗는 것이다. 가면은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위해서이다.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일부를 떼어내고 이물질을 붙여 가면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이익-적은 분쟁, 금전적 이익, 심리적 이익 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익을 위한 자기희생은 제로썸 게임이나 마이너스 썸 게임이다.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나이며 최악의 경우, 상대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고로 이런 마음가짐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이 현상은 오늘날에 와서 더 심화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과도한 가면으로 인한 혼란은 아마 수많은 얇은 가면 탓이 아닐까?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관계는 얕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헷갈려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집착해도 좋을 상대는 나뿐이다. 가면과 얼굴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면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고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집착을, 타인과의 관계를 어느정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안에 너 있다

10204 오동건

자기 진실성이란 한 마디로 '진정한 나'를 따라 '완전한 나'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의 복잡하고도 세속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여러 압력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인문학 강의, 관련 서적 등 여러 외적 요소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러나 열 명 중 아홉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자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답이 거기 없으니깐. 그렇다면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자신 스스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내가 누군지, 어떤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특정한 대상 혹은 관점이 아닌 자신 스스로이다.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본인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때, 그 기준은 인류 집단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 즉 공동선과 보편적 도덕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배되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경우, 개인은 합리적인 사유가 불가능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가치 판단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름으로 인한 괴리감 속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그 도덕적 기준은 주체적 사유와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나'의 도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과제.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와 분석이 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관통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결국 진정한 나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나만의 도덕적 기준이라면 그 기준 역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도덕적 기준은 나 스스로의 주체적 의지와 사유를 통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자신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의 정립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압력과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적 행위 실천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여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갈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자기 진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들은 우리 내부에 있었고 그들은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는 것,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를 파악하고 나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진정한 '나'를 찾을 때, 우리 모두는 비로소 완전한 '나'가 될 수 있다. 각박하고 불안한 현대 사회 속에서 점차 그 진실성을 잃는 이들이 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바깥이 아닌 우리 내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사회를 향한 보호색

10214 박지민

카멜레온과 같은 동물들은 자신에게 위험한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색을 통해 스스로를 위장한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동물들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스스로를 숨기지는 않지만 매순간 보이지 않는 보호색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부자들이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인에게 위협을 가했으면 가했지 누군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 그들도 사실은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먹이사슬과도 같은 관계를 두고 매순간 외줄타기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 보호색은 더욱 치열하고 다양하고 안타깝다. 정말 자신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겉보기에 비도덕적이지만 그 모든 것이 보호를 위해서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회사원이 부당한 지시에도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표면적으로는 상사의 요구에 맞추어 웃으며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회사원의 모습이 자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회사생활에 있어서 지속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윗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할 위협과 온갖 걱정들, 가족, 그리고 생계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자기보호의 차원에서 그 모든일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회적 페르소나를 쓴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호색을 내재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본모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누군가는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잃을 것도 많아 보호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더는 잃으면 안 되는 벼랑 끝에서 안간 힘을 쓰며 말이다.

결국 '보호색'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사실

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호색으로 위장하지 않은 본연의 모습이 나의 진실된 모습이며 곧 자기진실성의 실체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내 안의 소리가 달라 차이가 생기더라도 그 부조화 속 살아있는 나의 본심이 곧 '나'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조리와 부정, 부패를 목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요구로 돌아올 때 내가 보호색을 거부한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호색을 거부하고 완전한 나의 상태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완전한 나로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우리는 불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내부는 분주하게 바뀌놓아도 겉은 그대로라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페르소나로부터 벗어나 진실된 '나'가 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용기인데 사회적 페르소나 뒤에 숨게 된 이유와 불안에 놓인 이유가 모두 나에게 사회가 가하는 위협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자기진실성을 추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 더 완벽과 이익을 갈구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짙어지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제1의 시선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본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시선을 가장 많이 참고하여 자신을 두껍게, 더 두껍게 꾸며나간다. 그러니 제3의 시선을 들일 공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것이고, 얇게나마 보호색을 더하는 것과 그것을 포기하고 불안 속에 사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던져지는 것이다.

사회적 페르소나와 보호색을 떠나 자기진실성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한 나로 살아가기에는 어렵고 차가우며 딱딱하다. 불안 속에 놓인 내가 마지막으로 자기 윤리성에 도달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내린 답은 바로 '성찰'이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를 극복하고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사회적 페르소나 뒤에 숨은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자신이 소유한 보호색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리고 스스로가 진실성의 발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인지한 후에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실성이 빛을 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삼는 것이 절차일 것이다. 인간이 상호작용의 영향을 다분히 받는 사회적 동물임을 악용하기라도 하듯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것이 제1,2의 시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3의 시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성찰은 비단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자기윤리성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사실 성찰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기진실성과 자기윤리성을 실천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찰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별 헤는 밤'도 없었을 것이며, 당신이 오늘 친구에게 건넨 사과의 말도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성찰은 그 정도로 위대하다.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찰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면 진실된 나를 회복하는 일은 체념과 좌절로 그쳐질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둡다고 여겨지는 밤 하늘에 박힌 별들을 하나, 둘 헤아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별이 빛나고 있음을, 그래서 어두울 수 있는 밤을 열심히 밝히고 있음을, 또한 밤은 꽤 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서

10217 유 민

찰스 테일러는 '인간 내면의 내적인 정서 혹은 자신의 마음과의 진실한 접촉을 통해 도덕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진실성 혹은 자기 진정성의 윤리이다. 자기 진정성의 윤리는 18세기 이후 서구에서 형성된 개념이지만, 근대적 인간이 탄생하던 르네상스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는 근대적 인간의 자의식이 현대의 새로운 윤리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자기 인식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자기 인식(self-awareness)이란,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정, 생각, 믿음 그리고 강한 모습뿐 아니라 약한 모습까지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즉,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빠짐없이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한 것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자기 인식 단계에 도달한다면 개인은 자신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뇌하고,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고, 혹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신뢰감을 가지는 것은 스스로에게 진실해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할 때, 나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나보다 상황을 더 잘 해결해 줄 제3의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참된 자기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둘째, 우리는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이가 내 행동을 멋대로 재단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의 판단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판단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의도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즉 의지력이 필요하다. 내면과의 접촉을 통해 얻은 것을 외면적인 행동으로 연결해 직접적으로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다짐뿐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지력은 앞서 언급한 신뢰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르네상스의 인간관은 인간의 의지력의 동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의지력을 통해 내면에서 도달한 결과가 외부에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진정성의 실현과 마주할 수 있다.

21세기 현재,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면 대 면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의 관계에 둘러싸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즉, 우리의 삶이 타자에 의해 받는 영향이 더 커지고, 그 방법 또한 쉬워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실을 마냥 회피할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치 않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존재한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찾고 스스로를 타자의 자극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가끔은 스스로를 놓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과의 접촉을 통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 빠져 자신이 잊고 살았던 존재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 나가는 진정한 목적과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확인하며 말이다. 혼자만의 시간, 고독이 가끔은 자기 진정성을 위해 필요할지도 모른다.

‘나’에서 확장하여 ‘사회’까지

10308 김가현

자기진실성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은 사회적 요구나 규정들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진실성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개인적 측면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측면입니다.

먼저, 자기진실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후마니타스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의 본연성, 독자성에 진실한 것이 자신에게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는 ‘진실하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인간다움을 갖추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는데, 자기진실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삶의 요소들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각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개인에게 맞는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비로소 자기진실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진실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간관계, 상황, 사회, 그리고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인데,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생각, 행동, 심리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중심

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각 사람들은 살아온 삶의 배경과 사회가 다르며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생각, 관념, 행동 등의 '다름'을 보게 되고, 이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본질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특성, 본질, 가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로 불안의 큰 원인이 되어준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개인주의로 인해 자기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어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고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며 목적의식까지 상실하여 삶의 의미를 실종하거나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진실성 실현하는 것과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자기의 방식을 잃지 않고 본질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개인주의의 모습을 낮추어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언어를 통해 타인과 같은 시간과 공간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진실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다양한 각자의 삶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이상을 탐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자기책무를 공동체, 즉 사회 안에서 수행해낸다면 풍성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충만함과 행복함을 부여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or I don't know

10513 박다진

우리가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이 물음에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 보았다. 일단 자기 진실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진실성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본연성과 독자성에 진실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자기 진실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이는 무지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사전에서는 '아는 것이 없음', '미련하고 우악스러움'으로 정의한다. 나는 이 두 가지 뜻 중에 '아는 것이 없음'에 집중을 해보았다.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 타자에 대한 앎, 세상에 대한 앎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앎까지 없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만 자기 진실성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이때에는 자신이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지, 완벽한 무지는 갓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들이 부모라는 존재, 혹은 나라는 존재, 혹은 세상에 대해 티끌만큼이라도 알게 되면 이 무지는 깨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방법인 무지로써는 자기 진실성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진실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무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알아야한다. 그렇다. 우리가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앎이다.

앎은 자신에 대한 앎, 타자에 대한 앎, 사회에 대한 앎 등 모든 앎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앎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인식으로써의 앎이며, 둘째로는 이해로써의 앎이다. 인식으로써의 앎은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저기에 사람이 있다' 혹은 '저기에 한 사람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다. 반면에 이해로써의 앎은 풀어 말하자면 대상을 이해하여, 대상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로써의 앎만 완전히 앎에 해당된다. 즉 '저기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슬퍼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해로써의 앎 즉 완전한 앎에대한 욕망은 공동체에서의 갈등이나 다툼을 초래하기도 한다. 갈등이나 다툼은 모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혹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자신을 알아달라는) 요구에 불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할 때 갈등은 해결되게 된다. 이 이해로써의 앎에서 가장 중요한 앎은 자신에 대한 앎이다. 앞에서 무지는 자신이 자기진실성을 실현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면, 완전한 앎으로써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게 되면, 자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진실성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진실성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무지 혹은 완전한 앎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에 대한 인식, 감정에 대한 인식을 하자마자 완전한 무지는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것은 완전한 앎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나아가 타자, 사회에 대한 이해까지 확장될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본연성 즉 자기 진실성을 실현할 수 있다.

사색을 통해 나의 목소리 듣기

10515 신다은

자기 진실성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실현해야 할까? 찰스 테일러에 의하면 자기 진실성이란 외재적인 도덕의 강조를 마음속의 생각 쪽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말한다. 한마디로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한다는 것은, 나의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찰적 자아라는 말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나는 성찰적 자아를 내면의 자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내적 갈등이 주를 차지한다. 내적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천사와 악마로, 즉 서로 대조되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한 부분은 나의 욕구와 욕망이 결여된, 현실 세계의 '나'라면, 다른 한 부분은 이상적인 '나', 즉 내가 지향하고 싶은 도덕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인 자아가 내적 자아인 동시에 성찰적 자아인 것이다.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성을 통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삶의 뒤돌아보며 성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성찰적 자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으니,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사색의 시간을 추구해야 한다.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찰적 자아의 존재를 파악하고, 알아가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외부 세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자아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음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명예, 돈, 권력 등과 같은 외부 세계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수단적인,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만약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내적 자아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인 행복은 돈이나 명예, 권력 등과 같이 수단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궁극적'이다.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궁극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이다. 여기서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행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성찰적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면에서 외치고 있는 도덕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도덕적 목소리에 따라, 즉 자신의 가치 판단을 통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자기 진실성의 의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 2가지, 사색의 시간과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자신의 도덕적 자아의 목소리에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색의 시간과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실현을 통한 내면의 발전

10606 장준원

찰스 테일러를 비롯해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자기 진실성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진실성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함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현상이자 개념은 테일러가 주장했듯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자아실현과 달리 오직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의 지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진실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아실현과 자기 진정성은 명확히 구분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종의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불안을 해소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자기 진실성 추구이므로 자아실현을 통해 우리에게 내재된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타인이나 외부 집단의 간섭 없이 개인 스스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전 과정을 뜻한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부의 개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행동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의미 있는 고유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다는 점에서 진실성, 즉 '진정한' 자기만족과 실천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아실현에 접근해보자. 사람은 모두 개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목표도 각각 다를 것이다. 이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또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장시간에 걸쳐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아의 실현 과정이다. 자아실현은 꼭 목적이 명확하게 달성되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개인의 목표를 정해 끊임없이 과업을 실천하고 진정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기 진정성의 윤리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아실현과 자기 진실성의 윤리가 염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자아실현을 자기 진실성 추구를 위한 매개체로 삼은 데에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공통적 특성의 영향이 크다. 두 개념 모두 개인과 자신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집단이나 공동체적 관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나' 자신이 가지는 특별함과 의의를 부각시키며 이러한 개성과 강점을 한 층 더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자아실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차원에서의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것이 개개인에게 진실성의 원리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주제4] 사회

인간이 만든 신화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문명과 세계화를 고민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주머니에 있는 돈과 더불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자유로 인해 인간적 삶의 내용이 사라지고 본질이 해체되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중략)… 대상들이 지니는 질적인 측면은 화폐 경제에 의해 심리학적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화폐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받는데, 이는 결국 화폐 가치가 유일하게 타당한 가치로 보이게끔 만들어버린다.

-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지닌 동물성과 야만성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절대적 가치, 명령, 행위기준으로 올려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천민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쟁은 무조건 이기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

- 도정일, 녹색평론 21호(1995년 3-4월호)

인간을 위하여, 세계화를 위하여



*우수 논객 10106 조강현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를 추구하기도 하며, 그 하위 목적들을 달성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러한 목적들을 개개인 스스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 모두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홉스의 말처럼,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는 그 스스로를 보호해 나갈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은 그들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공동체에서 시작해 국가로까지 발전하게 된 이 개념은 몇천 년간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였으며, 문명의 발전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이제는 국가의 결계를 벗어나 세계로까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나라의 관점이 아닌 전 세계의 관점으로까지 변하게 되었다.

세계화. 즉, 다양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 증대로 인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은 인간 사회의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킨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거대한 부와 발전된 문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된 거대한 부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의 위계가 존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켜내었던 인권마저 흔들리게 되

면서 세계화는 더 이상 세계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경쟁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초기 세계화의 모습보다 현재는 더욱 발전된 세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애덤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가 탄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대국들의 수탈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세계화에 대해서 트릴레마(Trilemma)에 빠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중고 "세계화, 민주주의, 주권"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화과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주의와 주권의 힘은 약화된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면 그에 따라 주권은 약화될 것이고, 주권이 약화된다면 국가의 목적이 흐려지게 되어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전체를 위해서, 인간 모두를 위한 올바른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부터 변화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각 사회는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선 각 사회의 이질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시간동안 이룩되었던 문명과 사회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인종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질성 또한 어느 것이 우세하다고 따질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의 모습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서로간의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 식민지와 대량 학살, 전쟁이 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세계화는 모든 사회가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몇몇 선진국들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본다면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세계화를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속에는 세계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과 진행 과정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시작된 '사회'와 '국가'의 개념은 현재 인간을 지구상 가장 강한 권력자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주기도 하였다. 이제 인류는 국가의 이념을 넘어서 세계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더욱 심화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문명의 발전을 위해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세계화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장사회: 새로운 21세기의 전체주의



*우수 논객 10313 박채린

명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으로 위장한 강탈은 좋은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명분은 지금까지 세계가 발전하기까지 늘 빈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보, 개발, 세계화가 가장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세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진보와 개발이 있었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로 지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단어를 의심 없이 긍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희생과 피해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교과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은 나라를 바꾼 혁명자들, 승리한 국가와 대표들입니다. 진보와 개발을 이끈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즉 현재의 선진국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신화를 적어갑니다. 위계서열적 이분법으로 세계를 분류하고, 희망도 주는 다양한 공식들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현대 사회라는 완벽한 공식을 만들어 냅니다.

완벽한 공식사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수학처럼 정해진 공식에 대입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는 선진국들이 만들어놓은 그들 중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노예제부터 시작된 다양한 인종차별이 현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더 잘 살고, 개도국은 발전하기가 어려운 사회 체제도 선진국들이 만들어놓은 틀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선진국의 영향력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선진국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고, 어느 일이든 선진국의 도움과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항상 결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진보와 개발 그리고 세계화라는 단어를 거역할 수 없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답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이 공식에 대항하여 강자들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와 야만성을 폭로하는 사회주의가 등장 했었습니다. 이들은 강자들의 사상을 부정하고 채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강자들의 전략에 의해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개도국의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보와 개발, 세계화의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 국가에 적용되면 안됩니다. 기업은 사익을 취한다고 하지만 국가는 경쟁 단위가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할 때에는 최대한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경쟁과 생존을 목표로 하는 사회에는 사회적 질병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붕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이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붕괴라는 나락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신화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강대국 중심의 사회의 뒷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되고 인간으로서 축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의 시대에서 나치는 유대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정의하며, 그들의 특성과 문화를 모두 말살시켰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치는 유대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칭하였을까요?

인간이라는 우리가 칭하는 공통의 척도는 무너졌습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힘 있는 타자는 늘 '나'를 넘어서는 우월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안락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와 타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타자는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타자는 '나'를 내부세계에서 외부세계로 연결해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주의 사상은 매우 위험하고, 우리는 타자와 나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제국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와 완전한 민주사회인지, 선진국들의 힘의 원리로 인해 돌아가는 세계가 그들의 종속품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화, 세계화라는 단어에 포장되어 있는 21세기의 전체주의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문명의 진보, 세계화의 역설



*우수 논객 10505 정인서

세계화는 이미 현실이다. 정보 통신 및 수송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지게 했고 인간은 그에 맞추어 또다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의 진보'라는 단어가 인문학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문명의 진보'는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일구어 낼 수 있는 결과이다. 여러 개의 선택 중 이익이 되는 방향을 판단하고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진보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혹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인간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진보'를 이루어왔을까?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 독일 등이 정복 전쟁을 벌이던 역사를 생각해보자. 당시에는 제국주의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 등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이상'이었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제국주의는 '진보'였다.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와 수많은 사상자,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을 낳은 제국주의가 당시에는 진보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제국주의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있어서 진보가 꼭 좋은 의미는 아니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불러오지만 또 때로는 인간다움을 훼손하기도 하는 것이 진보이다. 현재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진보는 바로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는 자국 경제 및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주의적인 정책이 다수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이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문명의 진보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반인륜적인 발전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세계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세계화는 전 세계의 화합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어야만 한다. 평화와 화합에서는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약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기아, 전쟁의 피해자 및 희생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 등은 '경쟁의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시 말해 경쟁이 아닌 '화합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화합보다는 경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가는 세계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이전에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양국은 현재 자국 이익을 위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빈곤 시계 (World Poverty Clock)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9%인 6억 4천여만 명이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것이 진정한 화합이며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이 지향할 수 있는 올바른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나는 '세계화의 역설'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의 진정 중요한 개인은 소외되고 배제되는 현상, 그것이 세계화의 역설이자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속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모두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세계화라는 문명의 진보가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장점은 물론, 그 이면에 대해 명확히 생각하고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및 사회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다수의 참여와 동조를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올바른 세계화를 위해 시민운동과 국가적 정책 제안 등의 구체적 노력을 할 수 있다.

올바른 문명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며 사회적인 보장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과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올바른 문명의 진보, 올바른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문명의 오독

10101 김요엘

전 세계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통해 각 나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또한 보호무역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세계의 경제를 퇴보시키는 무역구조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주로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들이다.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영국 또한 보호무역주의 국가였다. 과거 영국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영국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했었다. 이를 통해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후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였다.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은 모두 보호무역을 한 후 일어난 것이다. 즉, 자유무역은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인한 혜택은 모두 받아 놓고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자유무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것이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현 개도국들과 유사한 발전단계에 있을 때 갖추지 않고 있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개도국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은 경쟁력이 약하다. 그런데 육성 단계인 산업들이 선진국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면 개발도상국은 그 싸움에서 계속 패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자유무역주의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상기한 문제점들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자유무역만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고 선진국들이 만들어낸 보호무역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한다. 또한 선진국들은 무조건적인 자유 개방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개발도상국들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진정한 세계화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의 성공 신화, 일부의 성공 신화

10217 유 민

'성공 신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색한 말은 아닐 것이다. 도서 검색 창에 '성공 신화'라는 말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책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초기 자본으로 시작해 사업이나 투자에 성공해서 막대한 재산을 형성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성공일까? 대체 성공이란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이고, 그 신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바라며 그러한 신화를 믿고 있는가?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책 속 신화의 주인공들이 목적했던 것은 '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명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또한 부와 명예를 삶의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개발 신화이다. 제국주의 이후 새로운 문명의 주축이 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개발과 저개발, 성장과 정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계를 나누었고, 저개발과 정체의 카테고리에 있는 국가들이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국가와 국가, 혹은 사회와 사회가 분리된 이분법적 세계에서 상위의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경쟁하며 더 많은 자본을 탐했다. 그런데 이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국가의 이야기가 성공의 신화로서 자리 잡으면서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은 국가 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들 각자들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세계로 가기 위해, 즉 문명의 주축이 된 자들이 만든 성공을 하기 위해 신화를 믿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더 많은 이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산업 혁명의 문명은 결국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생존 경쟁에 투입되어야 하는 문명으로 오독되기 시작했다. 이 경쟁에서 이겨서 부와 명예를 획득한 사람이 가는 길이 곧 신화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인간이 만든 부에 따른 '성공'이라는 신화는 현대 문명에서의 무한 경쟁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성공을 위해서, 사회가 박수쳐 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으면서도 누구나 뛰어들어야 하는 말 그대로의 생존 싸움이 된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신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신화 속 이야기가 실제 존재했든 아니든 그 기록은 전부 인간이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신화들은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상징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화 속 영웅들의 일화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상징하거나 악인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준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부의 성공 신화가 상징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부의 성공 신화는 누군가를 그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써 경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신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부의 신화는 결국 일부만의 신화로 존재할 뿐이다.

진보의 문명, 사회 그리고 개인

10420 윤소영

진보의 문명을 위해서 요구되는 인간사회에 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진보 그리고 합법칙성이란 무엇인가? 진보란 사전적 의미(네이버)로서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 변화의 발전을 추구함이다. 합법칙성이란 사전적 의미(네이버)로 자연, 역사, 사회 현상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 즉 진보란 역사 발전의 자연, 역사, 사회현상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사회 변화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 일정한 법칙이란 사회적 작용에 의해 적용되며 이 사회적 작용이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인간의 문명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사회 구조적, 기술적, 그리고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의 문명이란 이러한 문명이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먼저 다양한 사상의 발상과 그리고 공유를 통한 가장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의 색출은 가장 성공할 가능성 큰 진보의 문명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며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인류는 진정으로 진보하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수용과 존중이 되는 사회를 위해서 정확히 인류는 어떠한 사회적 요소를 구축해야 하는가?

다음을 유의하고 보았으면 한다. 사회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사회를 개인과 집단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현재 분리하는 국가, 그리고 초국가적 요소들(국제기구 등)은 사실 집단과 그리고 그 집단이 모인 것을 의미하기에 나는 사회를 개인과 집단으로 분리하겠다. 개인은 집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단은 개인의 모임으로 결국 집단의 개인에 대한 영향은 개인의 본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을 전제하에 인류에게 촉구되는 사회적 요소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진보의 문명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개인의 구축에 대해서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안정감을 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개인의

모임인 집단을 만들어 자신과 같은 것을 집합시키고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여 배척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은 획일화되어 간다. 이때 개인들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안정시킬 것이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위험에 대한 저항도를 줄여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안정감'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진보', 발전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 다양함은 곧 융합이고 융합은 새로운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접촉은 다양한 경험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은 깊고 넓으며 다양한 사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수용은 결국 다양한 사상에 대한 수용을 야기할 수 있다. 다른 것에 대한 수용은 개인의 수용에 대한 역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역량은 집단의 존속을 위해 조건 없는 것이 아닌 비판적 이게 진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은 잘못된 안정감을 버리고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진보의 문명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집단의 구축에 대해서이다. 집단 또한 개인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단은 개인의 집합이므로 집합은 새로운 개인의 본질을 흐리지 않아야 한다. 간혹 인류의 역사에서는 개인의 본질을 흐리는 집합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다수의 개인의 본질이 무시되고 그들보다 힘이 있는 소수의 개인의 본질대로 집합이 조종될 때였다. 주로 신분차가 있는 집단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았고 혹은 부패가 심한 집단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이 다양한 사상이 나오고 이러한 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이란 모든 기술, 생각 등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그렇기에 집단 중 사회적 체제로서의 국가는 부패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은 거의 유토피아, 이상 가까울 정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보의 문명을 위한 사회는 개인으로서는 다양함,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이 구축되어야 하고 집단은 개인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며 다양한 사상을 진흥시켜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경쟁의 신화와 문명의 오독

10508 권나경

서양의 국가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지배자의 역할을 도맡아왔다. 그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굴을 바꿨다.

19세기 서구 열강은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에 의한 폭발성의 증대를 경험했고 끝내 비서구 지역들을 식민지화하였다. 그러나 19세기의 유럽은 이 강점이 무단 강점일 경우 유럽은 문명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강도가 된다는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합법화할 정당하고 이유 있는 근거, 바로 진보신화를 완성하였다. 진보신화에 따르면 유럽은 문명의 본고장이며 비서구 지역은 야만, 무지의 땅이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강점이 아니라 구원이고 이 구원에 나서는 문명국은 이타적 구원자이다. 진보신화 뿐만 아니라 사회진화론으로도 그들은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동물세계에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듯이 사람들 사이에도 약자와 강자로 나뉘기 마련이며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이런 담론의 대상은 손쉽게 확장되어, 국가 또는 문명들 사이에도 강하고 우월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법칙과도 같은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서구 국가들은 사회주의권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발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왔다. 개발 이데올로기는 세계를 선진과 후진, 개발과 저개발, 성장과 정체라는 이분법으로 분할한다. 저개발국은 자본주의의 모형을 따르기만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는 사회주의권의 사실상의 소멸과 함께 개편된 새로운 질서, 곧 자본주의 국제화의 제3단계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냉전 경쟁기의 산물로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요구하는 시장현실이 출현하였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이 보편화되었다. 진보신화가 20세기 중반에 개발 신화로 이름을 바꾸고 개발 신화는 다시 '세계화'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명칭 대체의 역사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기본 성격으로 하고 있다. 이 3단계의 진행은 결국 자본주의 문명의 지속적 세계지배라는 그림을 완성한다.

지금 21세기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어쩌면 진보신화, 서구식 개발모델, 세계화로부터 이어져 온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발전해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이겨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짓밟게 된다. 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입시제도에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상대평가라는 제도 아래에서 주변 친구들을 적으로 여기게 된다. 선의의 경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물론 현재 학교 체제 안에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 밖의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그 분위기와 사회의 흐름 때문에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경쟁하고, 짓밟음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학생들은 행복하다고 느낄까? 평등을 교육 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는 핀란드는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이다. 이 나라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도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는 그들을 품어주려 노력한다. 교육제도에까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태도가 만연해진 지금, 핀란드처럼 경쟁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세계화를 준비하는 개인의 자세

10606 장준원

세계화.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는 현상. 말 그대로 수많은 국가들과 사회가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비슷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세계화로 개인의 삶이 크게 변화했다. 지구 곳곳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고,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워낙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했지 정작 어떤 세계화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심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개인에게 득이 되는 세계화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개인이란 국가나 사회 등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람을 의미한다. 즉, 의식을 가지고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본질적 의미를 언급한 이유는 개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대표적인 특성은 독립성이다. 소속 집단의 종속적 단위가 아닌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국가 간의 남아있는 불필요한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상당부분 무너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은 스스로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독립된 실체이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세계화를 통해 견문과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국 보호주의 등 세계를 향해 창문을 내지 않고 오히

려 문을 걸어 잠그는 태도는 세계화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발전이 없는 사회로의 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벽과 담장을 허물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세계화는 개개인의 정신적 성숙과 더 넓은 관점에서 국가의 인적 자본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인의 또 다른 특성은 역설적이게도 고립된 소외의 위험에 노출되고 삶의 황폐화에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불안을 느끼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아무리 세계화가 깊게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집단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기본 집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뛰어들었을 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족단위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회적 집단, 더 확장된다면 국가가 이러한 기본 집단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앞서 언급한 '장벽 무너뜨리기'가 불필요한 교류 절차를 간소화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면, 다음으로 주장하는 최소 집단의 유지는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발생할 혼란과 좌절을 방지하고 공동체가 개인이 다시 일어설 발판의 역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앞으로 일어날 급격한 변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것인지 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이러한 세계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명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10607 조성원

진보는 진화이다. 그리고 진화는 적응이고 생존이다. 따라서 진보는 적응이고 생존이다.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삶의 형태이다. 즉, 진보의 문명은 인류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다. 과거에 문명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이름만 강탈되었고, 서구 열강들은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같은 자신의 속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로 '문명'이라는 이름을 덮었다. 또 그들만의 신화를 만들어내 피식민지에게 그 신화를 전파하였다. 비록, 현재 그러한 사상들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신화는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진보가 근대화, 산업화를 뜻하는 의미가 아님을 깨닫고, 진정한 진보의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진보는 적응이고 생존이라 했다. 인간은 다른 육식성 동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힘이 없는 개체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 발전 선택했다. 인간이라는 종은 '기술'을 적응의 방식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 기술이 현재 많이 발전되었고, 지구 상 천적이 없을 정도로 적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 사회는 인문보다는 과학과 공학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그 기술이 다른 종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끼리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종의 적응을 위해서, 기술에 집중된 과학중심 사회를 택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인간은 인문과 과학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의 사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우선시 되는 사회이다. 여기서 사람은 인종, 성, 나이 등을 신경 쓰지 않은, 생물학적 사람을 말한다. 사람중심의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종

의 적응이고 생존이다. 개개인의 권리와 개성, 인권이 존중받고, 행복하고, 인간다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인간다움, 그리고 근대화와 문명에 대해서 배운 것이다. 이것들을 배우면서 각자 행복이란 무엇인지, 인간다움이란 무엇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정립했을 것이다. 그것을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면, 모두가 그러한 것을 따르면 될 것이다.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기준을 양심으로 두었다.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사람중심의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중간 계층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협력, 상호 존중 등이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존중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 도움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자연에 적응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우리는 적응,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선시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 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후마니타스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위한 세계화

10621 채여원

사회가 서구식 관점에 맞추어 성공만을 좇아간다는 것을 사실인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한 사례지만 아직도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선진사회가 제시한 성공 루트를 따라 하고, 그에 비해 성공한 사례는 적다. 기술의 개발, 자본주의의 도입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은 선진 서구사회가 믿게 한, 그들의 주장이다. 세상이 그들의 주장을 믿게 되면서 서구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갔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힘겨루기를 하던 냉전 시대 때, 부를 약속한 자본주의 진영은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세계화에서 두드러지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자면 제국주의 시대까지 거슬러간다. 제국주의와 함께 등장한 진보 신화에서 유럽은 문명 세계이고 '진보'의 땅이며 세계의 다른 비서구 지역은 야만, 무지의 땅이었다. 따라서 문명 세계가 야만의 땅을 접수하여 '진보'를 심어주는 일은 구원의 손길이었다. 이후에 등장한 '개발' 이데올로기는 제2차 대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와 현실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특징을 가졌다. 하지만 그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진보 신화가 문명과 야만, 지식과 무지, 진리와 미신이라는 이분법으로 세계를 분류했던 것처럼, 개발 신화도 발전과 후진, 성장과 정체라는 순서를 매겨 세계를 분류했다. 세계화는 21세기의 진보 신화이며, 진보-개발-세계화의 3단계는 결국 자본주의 문명의 지속적 세계지배를 완성했다.

하지만 인간이 신화, 문명이라고 일컬었던 사건들에 대해 세상이 진정으로 발전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세상은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과

연 얼마나 많은 국가가 부를 얻었을까? 어쩌면 부를 얻은 나라가 아니라 부를 늘린 나라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세계는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는 사회구성원, 즉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이익만 꾀하는 도덕에 어긋나는 방식의 발전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세계화의 발전 방향으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은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이념이 세계화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나는 각자만의 이익을 위한 세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사람다움, 인간의 인권이 최우선적인 가치이다. 그러한 면에서 현 방식과 같은 세계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존재를 밟고 올라서는 경쟁이 세계의 공통이념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들이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과 별개이며, 경쟁은 나라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8학년도 1학년
후마니타스 & 다중정원 자료집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국제고등학교장	류기서
편집 및 기획	인천국제고등학교 교사	김윤정 박용회 임정환 황정숙
표지 디자인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118 오예나 10124 홍현아

발행일 : 2019년 2월
발행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전화: (032) 745-4500
FAX: (032) 746-7510
학교 홈페이지: ii.icehs.kr

이것도 색감 세련되게 수정 부탁드려요
(표지 뒤쪽 하단에 designed by 오예나, 홍현아 - 라고 넣어주세요)

